

노인의 삶의 만족 영향 요인

김기영* · 박희봉**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개인적 배경보다 사회활동 및 사회자본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 연구를 시도한다.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본 연구는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 만족, 성생활 만족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적 배경을 통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 노인을 구분하여 추가로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인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가족 및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연령, 소득, 학력과 같은 개인적 배경과 복지시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활동과 가족 및 친구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노인의 삶의 만족,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 만족, 성생활 만족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른다. 이미 국제 고령사회의 기준인 15%를 넘고 있다. 2026년에는 국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 2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김춘옥, 2014; 김광호, 2019). 노령화의 급격한 진전은 개별 가정과 국가에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노인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노령화라는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도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사람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온 분야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배경이다.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일한 요인이라면 삶의 만족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소득과 학력을 단기적으로 높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한 노인의 경우라면 더욱 쉽지 않다.

한편, 개인적 배경 이외에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직을 지낸 노인이 많아지면서 젊은 날 저축 및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존적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삶의 가치 또는 삶의 만족 요인이 변화하는 현상을 Inglehart(1997)는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에서 탈물질적 측면으로 다양화한다고 설명한다. 즉 물질적 풍요가 현대인에게 더 이상 삶의 가치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간관계 또는 사회자본이 주목받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각종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증진시킨다면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개인적 배경보다 사회활동 및 사회자본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다.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로 본 연구는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 만족, 성생활 만족 등을 개인적 배경으로 통제하여 분석하였고, 남녀 노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노인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의 삶의 행태와 환경이 노인이 되기 전과 사뭇 다를 수 있다. 또한 남녀 노인 간에도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방안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II.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hen과 Spector(1991)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상황, ② 열망, ③ 다른 사람과의 비교, ④ 사람의 기본적 기질 등을 들고 있다. Konow와 Earley(1999)는 ① 객관적 상황, ② 생활 속에서 경험한 긍정적·부정적 기억, ③ 주위로부터의 평가, ④ 배우자에 의한 평가, ⑤ 진정한 미소, ⑥ 스트레스 등을 말한다. Frey와 Stutzer(2000)는 ① 개인적 요인, ② 소득, 물가, 실업 등 미시적·거시적 경제요인, ③ 정치적·제도적 조건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OECD(2001)는 ① 건강, 지식, 기술 등 개인이 보유한 자원, ②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협력을 증진하는 사회자본, ③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제도, ④ 개인이 처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배경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대표적인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려고 한다. 즉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① 사회활동, ② 사회자본, ③ 복지시설 만족, ④ 성생활 만족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배경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1.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

일상생활,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사회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노인의 사회활동은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적인 학자들의 연구결과이다. 우선 노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은 다수의 학자가 검증하고 있다(리해근·하규수, 2012). 같은 논리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삶의 만족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차은진·김경호, 2017: 461).

노인의 여가활동도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홍성희, 2016; 이해자·성명옥·신윤아, 2003; 김성연·박미석, 2000). 노인의 시간을 취미활동, 사교모임, 종교모임 등으로 활용하면 정서상 안정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활력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김광호, 2019) 결국 삶의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김수연·원영신·김원진, 2019; 곽인숙, 2011). 실제로 이웃과 친척과 교류를 많이 하는 농촌에 사는 노인의 경우는 삶의 만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승환, 2007).

또한 스포츠 활동, 사교 행사 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한다(Yuan, 2016).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공동체가 결속되기 때문에 결국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im & Putnam, 2010). Leyden 등(2011)은 문화 및 레저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삶에 만족하면서 생활한다고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Yuan(2016)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도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지현·최성은, 2020; 권현수 2009).

반면, 학자들은 노인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보고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곽인숙(2011)은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외로움과 실망감, 우울감의 증가로 인해 삶의 만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감,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감을 낮추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과 부(-)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김성연·박미석, 2000; 이혜자·성명옥·신윤아, 2003; 홍성희, 1998). 또한 김영주(2009)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2.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elliwell(2001)은 사회자본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Brown과 Harris(1978)는 사회적 격리가 질병을 일으킨다며 사회자본이 건강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utnam(2000)은 사회자본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lanchflower와 Oswald(2000)는 사회자본이 교육 및 소득보다 개인과 집단의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Rodrik(1998)는 사회자본이 불확실한 경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일반적인 신뢰, 즉 사회자본 수준이 국가 전체적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Yuan(2016)은 중국에서 사회자본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는 동시에 사회자본이 스트레스 완충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순돌과 성민현(2012)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 및 종류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신상식·최수일, 2010), 신뢰가 높을수록 다양한 신뢰자로부터 협력을 받아 삶의 질이 높

아진다(이정규, 2009; Helliwell, 2006; 정순돌·성민현, 2012)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한 노인일수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한다(오승환, 2007; 박지현·최성은, 2020). 임은의·구본진·임세현(2008)은 농촌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더 구체적으로 박상규·고정은·이영희(2012)와 홍성희(2016)는 좋은 가족관계와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twin과 Shiovitz-Ezra(2006)는 이스라엘의 경우 친구관계가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가족관계는 좋지만 친구 및 이웃관계가 부족한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Yuan(2016) 역시 홍콩과 북경에 사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도움과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Cheng et al. 2009).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노인의 우울증, 스트레스 등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킴으로써 소외감을 제거하고 노인에게 관심과 사랑, 존중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김영주, 2009; 곽인숙, 2011). 하지만 이인정(2007)은 여성 노인은 배우자의 지지와 관심보다 친구의 지지가 더 효과가 있으며, 자녀의 관심과 지지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인의 성별로 사회자본의 효과가 다소 다르다고 주장한다.

3. 복지 만족과 삶의 만족

노인복지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로 지정되는 등 그 중요도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복지만족은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 및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이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김정훈(2018)은 사회교육, 일자리 지원, 방문봉사, 의료비지원,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윤경(2009)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가 복지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복지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박지현·최성은, 2020).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이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복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관심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인들은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시설 등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급여로서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등 전반적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김정훈, 2018). 따라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 성생활 만족과 삶의 만족

일반적으로 성생활 만족은 부부 갈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성생활을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나동석·김영대, 2011; 김춘미·이홍자, 2010).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는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성생활 만족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각과 노인이지만 아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노인도 젊은이와 같이 규칙적인 성생활은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가져온다고 하는 성생활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도 있다(김선녀, 2013).

현실적으로 김선녀(2013)는 60세 이상의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에 이르고 있고 이는 세계 평균 73%보다 높다. 원영옥·곽종형(2014)은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게 나타났으며, 성생활 만족도는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건전한 성문화 발전을 위해 노인의 성교육 및 다양한 성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김양이·송기오, 2010).

5. 개인적 배경과 삶의 만족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 중에서 첫째 연령은 국내 연구(박지현·최성은, 2020)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Chou & Chi, 1999)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육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배우자와 사별 가능성이 높아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는 등 연령 이외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곽인숙, 2011: 109). 한편 정명숙(2007)은 노인의 연령과 삶의 만족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Easterlin(1974; 1995: 118), Helliwell(2001), Diener 등(1999), Balanchflower와 Oswald(2000)는 연령은 30대를 중심으로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등 연령이 많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둘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소득과의 관계이다. 국가적 비교에 있어서 Diener 등(1999)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이 삶의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Easterlin(1995), Helliwell(2001), Balanchflower와 Oswald(2000) 역시 경제적 변수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Oswald(1997)는 구체적으로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면 삶의 만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Graham과 Pettinato(2001)는 실업수당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소득과 관련이 있는 변수와 삶의 만족 간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Easterlin(1995)은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 간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였고(Bjornskov 2003: 4-5),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소득이 낮은 국가가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시민의 삶의 만족이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다.

김명소(2003)는 소득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월 소득 250만원을 전후해 삶의 만족 지수가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원영옥과 곽종형(2014)은 경제적 자립을 이룬 노인의 삶의 만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지현과 최성은(2020) 역시 노인의 소득은 다양한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자아와 지위를 유지해주고(김종숙, 1986; 정명숙, 2007; 박인숙, 2011), 연금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김정훈, 2018). 박지현과 최성은(2020) 등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소득이 높고, 인지기능이 높으며, 우울감이 덜 느끼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소득이 낮으면 경제활동의 무능감과 역할상실로 이어져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김정훈, 2018). 그러나 홍성희(2016)는 노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이 크게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노인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논의이다. Easterlin(1995), Helliwell(2001) 등 외국학자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을 크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김명자(1982)와 같은 한국 학자들도 노인의 학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하였다. 박지현·최성은(2020) 역시 노인의 학력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명숙(2007)은 노인의 학력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넷째, 삶의 만족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다. Easterlin(1995), Helliwell(2001), Diener 외(1999), Balanchflower와 Oswald(2000) 등 외국학자들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이 높다고 보고했다(김명자, 1982; 박인숙, 2011).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다섯째, 배우자의 유무이다. Easterlin(1995), Helliwell(2001), Diener 외(1999), Balanchflower와 Oswald(2000) 등 외국학자들은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높고(김지연, 2018; 박경란, 1988; 이신숙, 2004), 심리적인 위축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낮다는 것이다(김지연, 2007; 김태현, 1980; 이신숙·이선정, 2019). 또한 원영옥과 곽종형(2014)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성생활만족도가 높은 까닭에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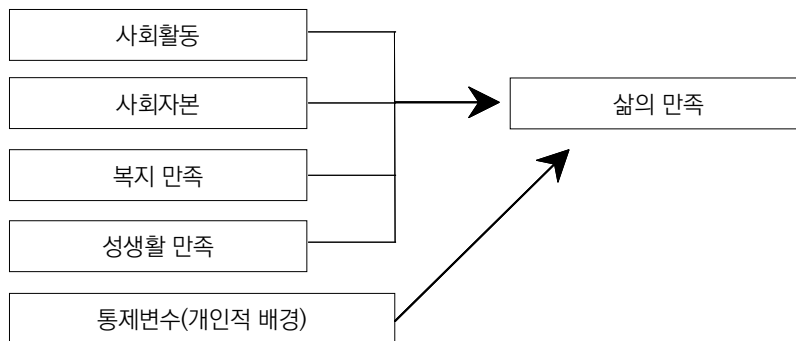
반면, 여성 노인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 새로운 삶을 맞이하여 생존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였다(유희정, 2006). 또한 정명숙(2007)은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유무가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남성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것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여성 노인에게는 배우자의 유무가 삶의 만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곽인숙, 2011).

Ⅲ. 연구조사설계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① 일상생활을 할 능력이 있고, 여가활동이 활발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으며, ②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 인간관계가 활발하여 사회자본이 높게 형성된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③ 다양한 복지시설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으며, ④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고, ⑤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공통적인 현상일수도 있고, 어떤 측면은 성별에 따라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성 노인에게 또는 여성 노인에게 특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남녀 노인의 개인적 배경,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시설 만족,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과제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가설 및 변수

이러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일상생활, 여가활동, 적극적 사회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는(곽인숙, 2011; 김광호, 2019; 김성연·박미석, 2000; 김수연·윤희영·김원진, 2019; 리해근·하규수, 2012; 이해자·성명옥·신윤아, 2003; 차은진·김경호, 2017; 홍성희, 2016; Leyden et al., 2011; Lim & Putnam, 2010; Yuan, 2016), 곽인숙(2011) 반면, 김성연·박미석(2000), 이해자·성명옥·신윤아(2003), 홍성희(1998), 김영주(2009) 등은 노인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일상생활, 적극적 사회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역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경우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곽인숙, 2011; 김영주, 2009; 박상규·고정은·이영희, 2012; 박지현·최성은, 2020; 신상식·최수일, 2010; 오승환, 2007; 이인정, 2007; 이정규, 2009; 임은의·구본진·임세현, 2008; 정순돌·성민현, 2012; 홍성희, 2016).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는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0; Brown & Harris, 1978; Cheng et al., 2009; Helliwell, 2001; Inglehart & Klingemann, 2000; Litwin & Shiovitz-Ezra, 2006; Putnam, 2000; Rodrik, 1998, Yuan, 2016). 다만,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 어떤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자본이 더 크게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자본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복지정책 만족이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 관계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각종 복지시설과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과를 제시한다(김정훈, 2018; 박지현·최성은, 2020; 이윤경,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지원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성생활 만족과 삶의 만족에서 기존 연구는 성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성생활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양이·송기오, 2010; 김춘미·이홍자, 2010; 나동석·김영대, 2011; 원영옥·곽종형, 2014). 다만, 노인은 성기능 퇴화로 인해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김선녀, 2013). 하지만 노인에게도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성생활 만족도가 높고, 성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개인적 배경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노인의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곽인숙, 2011; 박지현·최성은, 2020; Chou & Chi, 1999)와 연령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정명숙, 2007),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연구(Balanchflower & Oswald, 2000; Diener et. al., 1999; Easterlin, 1974; 1995; Helliwell, 2001)도 있다.

한편, 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연구가 대세이며(곽인숙, 2011; 곽종형, 2014; 김명소, 2003; 김정훈, 2018; 김종숙, 1986; 박지현·최성은, 2020; 정명숙, 2007), 학력 역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곽인숙, 2011; 김명자, 1982; Balanchflower & Oswald, 2000; Diener et. al., 1999; Easterlin, 1995; Helliwell, 2001). 물론 일부 학자는 노인의 소득(홍성희, 2016)과 학력(정명숙, 2007)이 삶의 만족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다수의 학자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지연, 2018; 김태현, 1980; 박경란, 1988; 유희정, 2006; 이신숙, 2004; 이신숙·이선정, 2019). 하지만 정명숙(2007)과 곽인숙(2011)은 남성 노인의 배우자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반면, 여성 노인은 배우자와 삶의 만족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수 연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표 1〉 변수 및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삶의 만족 (종속변수)	행복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만족, 주거 만족, 종교 만족	
사회활동 (독립변수)	일상생활 만족	젊음 유지, 인생 재미, 상대적 행복
	적극적 사회활동	외부활동 성공, 적극적 사회활동, 적극적 경제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봉사활동
	우울감	외로움, 우울감, 나이 문제
사회자본 (독립변수)	가족 사회자본	가족 도움, 가족관계, 가족간 대화, 가족 관심, 가족 의견 존중, 가족 신뢰
	친지 사회자본	친지 도움, 친지관계, 친지간 대화, 친지 관심, 친지 의견 존중, 친지 신뢰
	이웃 사회자본	이웃 도움, 이웃관계, 이웃간 대화, 이웃 관심, 이웃 의견 존중, 이웃 신뢰
	친구 사회자본	친구 도움, 친구관계, 친구간 대화, 친구 관심, 친구 의견 존중, 친구 신뢰
복지 만족 (독립변수)	요양시설 만족	요양원 시설, 요양병원 시설, 병원/보건소 시설 만족
	복지지원 만족	복지 시설, 일자리, 여가 시설, 운동 시설, 운동 프로그램, 복지 수당
성생활 만족 (독립변수)	성생활 만족	성적 욕구, 정기적 성생활, 성생활 중요성, 정신적 평화, 성생활 유지, 잦은 성생활, 성생활 관심
	성생활 기대	이성친구 성관계, 이성교제,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
개인적 배경 (통제변수)	연령	연령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소득	월 평균 수입(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학력	최종 학력(국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석사 이상)
	성별	성 (여성, 남성)
	배우자	배우자 유무 (유, 무)

노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곽인숙, 2011; 김홍남·차은진·김경호, 2017; 박지현·최성은, 2020; 정순돌·성민현, 2012)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쟁점이 되고 있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행복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만족, 주거 만족, 종교 만족 등을 포함한 9개 문항을 설문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어, 이 결과를 이용하였다.¹⁾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은 일상생활과 다양한 사회활동, 우울감 등에 대한 만족을 설문하였다. 여기에서 노인의 사회활동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및 네트워크가 아닌 본인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 만족과 적극적 사회활동, 우울감으로 명명하였다.²⁾ 셋

1) 삶의 만족에 관한 9개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개별 요인들의 신뢰계수(Cronbach's α)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사회활동에 관한 8개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외부활동 성공, 적극적 사회활동, 적극적 경제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봉사활동 등 5개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분류되었고, 젊음 유지, 인생 재미, 상대적 행복 등 3개 문항이 다른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2개로 분류된 요인의 신뢰계수(Cronbach's α)가

째, 노인의 사회자본은 가족과 친지, 이웃, 친구 등에 대한 도움, 관계, 대화, 관심, 의견 존중, 신뢰를 각각 설문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자본은 가족, 친지, 이웃, 친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 및 네트워크를 하는가를 특정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별도로 요인분석한 결과 모두 단일한 요인으로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였다.³⁾ 넷째, 노인의 복지시설 만족은 각종 복지시설 및 복지지원에 대한 만족을 설문하고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양시설 만족과 복지지원 만족으로 명명하였다.⁴⁾ 다섯째, 노인의 성생활 만족은 현재의 성생활 만족과 성생활에 대한 기대에 대해 설문하고,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성생활 만족과 성생활 기대로 명명하였다.⁵⁾ 여섯째, 개인적 배경 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배우자 유무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변수 및 측정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표본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 1개월에 걸쳐 대한노인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대학교 사회자본연구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설문지 교부는 전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표본수는 1,007부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의 개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표본 추출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대상자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로는 60대 555명(55.1%), 70대 316명(31.4%), 80대 이상 136명(13.5%)이다. 둘째, 소득 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92명(19.3%), 100-200만원 190명(19.1%), 200-300만원이 185명(18.6%), 300-400만원 120명(12.1%), 400-500만원 119명(12.0%), 500만원 이상이 189명(19.0%)이다. 셋째, 학력별로는 국졸(초등학교졸) 이하 129명(12.9%), 중졸 150명(15.0%), 고졸 287명(28.7%), 전문대졸 121명(12.1%), 대졸 222명(22.2%), 대학원졸 이상 91명(9.1%)이다. 넷째, 성별로는 여성 504명(44.4%), 남성 423명(45.6%)이다. 다섯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19명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분변환 행렬값이 각각 0.740으로 나타났다.

- 3) 가족 사회자본, 친지 사회자본, 이웃 사회자본, 친구 사회자본을 각각 요인분석한 결과 개별 요인들의 신뢰계수(Cronbach's α)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 4) 복지 만족에 관한 9개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요양원 시설, 요양병원 시설, 병원/보건소 시설 만족 등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복지 시설, 일자리, 여가 시설, 운동 시설, 운동 프로그램, 복지 수당 등 6개 문항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개로 분류된 요인의 신뢰계수(Cronbach's α)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분변환 행렬값이 각각 0.808로 나타났다.
- 5) 성생활에 관한 12개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성적 욕구, 정기적 성생활, 성생활 중요성, 정신적 평화, 성생활 유지, 잦은 성생활, 성생활 관심 등 7개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분류되었고, 이성친구 성관계, 이성교제,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5개 문항이 다른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2개로 분류된 요인의 신뢰계수(Cronbach's α)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분변환 행렬값이 각각 0.798로 나타났다.

(62.3%), 독신 또는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375명(37.7%)이다.

〈표 2〉 표본의 개인적 속성

개인적 속성		빈도	비율(%)
연령	60대	555	55.1
	70대	316	31.4
	80대 이상	136	13.5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92	19.3
	100-200만원	190	19.1
	200-300만원	185	18.6
	300-400만원	120	12.1
	400-500만원	119	12.0
	500만원 이상	189	19.0
학력	국졸 이하	129	12.9
	중졸	150	15.0
	고졸	287	28.7
	전문대졸	121	12.1
	대졸	222	22.2
성별	대학원 이상	91	9.1
	여성	504	54.4
배우자 유무	남성	423	45.6
	배우자 유	619	62.3
	배우자 무	375	37.7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만족과 독립변수인 노인의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만족, 성생활 만족에 대한 평균값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은 5점 만점에서 3.23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회활동에서는 우울감이 3.0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사회활동(3.11)이 일상생활(2.90)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이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만족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자본에 있어서는 가족 사회자본(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 사회자본(3.52), 이웃 사회자본(3.37)이며 친지 사회자본(3.2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노인들이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친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친지에 대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복지만족에 있어서는 요양시설 만족(3.22)이 복지지원 만족(3.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요양시설 투자의 결과로 해석되면 아직도 노인에게는 복지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생활 만족에 있어서는 성생활 만족(2.55)과 성생활 기대(2.22) 모두 3점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삶의 만족		3.23	0.91	1006
사회활동	일상생활	2.90	0.82	1001
	적극적 사회활동	3.11	0.77	1005
	우울감	3.03	0.78	1003
사회자본	가족 사회자본	3.75	0.91	1006
	친지 사회자본	3.36	0.90	998
	이웃 사회자본	3.37	0.84	1004
	친구 사회자본	3.52	0.87	1005
복지 만족	요양시설 만족	3.22	0.71	1003
	복지지원 만족	3.08	0.77	998
성생활 만족	성생활 만족	2.55	0.89	923
	성생활 기대	2.22	0.86	928

〈표 4〉 개인적 배경별 삶의 만족

개인적 속성		삶의 만족	F	유의도
연령	60대	3.33	6.675	.001
	70대	3.17		
	80대 이상	3.16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87	29.438	.000
	100-200만원	3.13		
	200-300만원	3.28		
	300-400만원	3.33		
	400-500만원	3.49		
	500만원 이상	3.61		
학력	국졸 이하	3.00	15.026	.000
	중졸	3.07		
	고졸	3.26		
	전문대졸	3.26		
	대졸	3.37		
	대학원 이상	3.69		
성별	여성	3.27	.308	.579
	남성	3.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	3.37	47.265	.000
	배우자 무	3.07		

〈표 4〉는 한국 노인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삶의 만족이 어떤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별로 삶의 만족이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6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8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득별로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고($p=.000$), 월 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올라갔다. 특이한 점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의 삶의 만족도 3.0 이하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학력별로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고($p=.000$), 학력이 가장 낮은 국졸 이하의 학력자의 평균값(2.87)이 가장 낮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의 삶의 만족도(3.69)가 특히 높았다. 성별로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로는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고($p=.000$),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성별을 제외한 노인의 개인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5〉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이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과 특히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일상생활(.715**), 적극적 사회활동(.671) 등 사회활동 변수이며 유의성($p < 0.01$)도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생활과 적극적 사회활동 간의 상관관계(.684)를 비롯하여 친지 사회자본과 이웃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605), 친지 사회자본과 친구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633), 이웃 사회자본과 친구 사회자본(.650), 성생활 만족과 성생활 기대 간의 상관관계(.734) 등으로 상관관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5개나 되었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공선성통계량(VIF)을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공선성통계량이 2.5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삶의 만족 (1)	-											
일상생활 (2)	.715**	-										
적극적 사회활동 (3)	.671**	.684**	-									
우울감 (4)	.002	.055	-.062*	-								
가족 사회자본 (5)	.552**	.447**	.447**	-.062*	-							
친지 사회자본 (6)	.537**	.469**	.469**	-.011	.574**	-						
이웃 사회자본 (7)	.519**	.470**	.470**	.016	.552**	.605**	-					
친구 사회자본 (8)	.563**	.501**	.501**	.003	.534**	.633**	.650**	-				
요양시설 만족 (9)	.357**	.283**	.283**	.078*	.264**	.289**	.253**	.297**	-			
복지지원 만족 (10)	.395**	.378**	.355**	.106**	.240**	.297**	.345**	.336**	.589**	-		
성생활 만족 (11)	.346**	.406**	.332**	.019	.220**	.245**	.267**	.254**	.119**	.156**	-	
성생활 기대 (12)	.241**	.366**	.286**	.110*	.119**	.146**	.203**	.185**	.102**	.119**	.734**	-

** $p < .01$, * $p < .05$

2. 인과관계 분석

〈표 6〉는 노인의 개인적 배경과 사회활동, 사회자본, 복지만족, 성생활 만족 등이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노인, 남성 노인, 여성 노인 모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독립변수들의 모델 설명력은 66.6%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 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사회활동 활동성, 사회활동 적극성, 가족사회자본, 친구사회자본, 친척사회자본, 요양시설 만족, 성생활 만족, 연령, 소득 등 9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활동의 활동성과 적극성이 높고, 가족사회자본과 친구사회자본이 높으며, 요양시설 만족도가 높고,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소득과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의 독립변수들의 모델 설명력은 70.7%로 전체 노인의 설명력(66.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 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남성 노인의 사회활동 활동성, 사회활동 적극성, 가족사회자본, 친구사회자본, 요양시설 만족, 연령, 학력 등 7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체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자본 변수 중에서는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는 가족사회자본, 친구사회자본, 친척사회자본 등 3개였으나,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는 가족사회자본과 친구사회자본 2개였다. 또한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성생활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는 성생활 만족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만족 변수는 전체 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시설 만족과 노인복지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시설 만족만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은 전체 노인의 결과와 남성 노인의 결과가 같게 나타났다. 개인적 배경 중에서 연령과 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는 연령과 학력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의 전체 독립변수들의 모델 설명력은 64.7%로 남성 노인의 설명력(70.7%)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 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여성 노인의 사회활동 활동성, 사회활동 적극성, 가족사회자본, 친구사회자본, 요양시설 만족, 성생활 만족, 성생활 필요성, 연령, 소득 등 9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활동 활동성, 사회활동

적극성, 가족사회자본, 친구사회자본, 요양시설 만족, 연령 등 6개 변수이다. 차이점으로는 성생활 만족 변수에서 여성 노인의 경우는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생활 필요성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는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변수에서 여성 노인의 경우는 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표 6〉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노인	남성 노인	여성 노인
사회활동	활동성	.340***	.303***	.382***
	적극성	.256***	.248***	.252***
	우울성	-.037	-.032	-.052
사회자본	가족관계	.133***	.126**	.138***
	이웃관계	-.003	.014	-.007
	친구관계	.100**	.112*	.100*
	친척관계	.074*	.072	.057
복지 만족	요양시설만족	.110***	.132***	.083*
	노인복지만족	.006	.012	-.005
성생활 만족	성생활만족	.099**	.084	.088*
	성생활필요성	-.067	-.017	-.092*
개인적 배경 (통제변수)	연령	.104***	.063*	.124***
	소득	.061*	.014	.084*
	학력	.030	.077*	-.006
	성별	-.035		
	배우자	-.016	-.049	-.001
R ²		.666	.707	.647
F		108.20***	62.54***	56.61***

*** p < .001, ** p < .01, * p < .05

V. 논의 및 결론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이 활발한 경우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홍남·차은진·김경호, 2017: 460; 리해근·하규수, 2012; Hilleras et. al. 2001; Fagerstrom et. al., 2007), 적극적인 사회활동 역시 삶의 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김성연, 박미석, 2000; 이해자, 서명옥, 신윤아, 2003; 홍성희, 1998; 김광호, 2019; 김수연, 2002; 김수정, 2006; 곽인숙, 2011). 본 연구에서도 남녀 노인 모두 사회활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받아들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특별한 점은 사회생활 만족 변수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R^2)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자 노인의 사회생활 만족 변수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R^2)은 58.6%이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57.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녀 노인 모두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Brown & Harris, 1978; Putnam, 2000; Blanchflower & Oswald, 2000; Inglehart & Klingemann, 2000; Fratiglioni et. al., 2000; 정순돌·성민현, 2012; 신상식·최수일, 2010; 박상규, 2006); 홍성희, 1998; 이인정, 2007).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일부 사회자본 변수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노인 모두 가족사회자본과 친구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사회자본과 친척사회자본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자본 변수도 사회생활 만족 변수에 비해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R^2)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이하다. 남자 노인의 사회자본 변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R^2)이 48.2%이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40.8%이다. 이 결과는 남녀 노인 모두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와 네트워크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3은 노인의 복지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이 다양한 복지시설 및 복지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했다(김정훈, 2018; 이윤경, 2009; 박지현·최성은, 2020).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일부 복지 지원 변수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노인 모두 요양시설 만족이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지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논의할 점은 노인에게 대한 요양시설에 대한 만족은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비해, 복지지원 만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인들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노인들에게는 일단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요양시설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4는 노인의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생활 만족이 대체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나동석·김영대, 2011; 김춘미·이홍자, 2010; 김선녀, 2013; 차화석, 2009; 신용선, 2011; 원영

옥·곽종형, 2014: 113). 본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의 경우 성생활 만족과 성생활 필요성 모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는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성생활 필요성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남성 노인의 경우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 노인은 성생활을 남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 노인의 경우 현재의 성생활 만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이지만 성생활이 필요한 것과 삶의 만족은 부정적이라는 결과 역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결과로 가설 4는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보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개인의 경제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가설 5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연령이 높으면 삶의 만족이 하락하고(Chou & Chi, 1999; 곽인숙, 2011), 소득이 높으면 삶의 만족이 증가하며(Diener, Horwitz, Eamons, 1999; Easterlin, 1974; 1995, Helliwell, 2001; 김명소, 2003; 원영옥·곽종형, 2014; 김정훈, 2018),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김명자, 1982; 김재호, 1987; 박지현·최성은, 2020),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이 높으며(Easterlin, 1995; Helliwell, 2001; Diener, et. al., 1999; Balanchflower & Oswald, 2000),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한다(김지연, 2002; 박경란, 1988; 이신숙, 2004).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개인적 배경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났다. 즉 남성 노인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인에게서 성별 및 배우자 유무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층별로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연령이 낮은 60대가 70대와 80대이상의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전체 노인 및 남녀 노인을 구분하였을 때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연령 변수만으로는 연령이 낮으면 삶의 만족이 높은 반면, 연령 변수가 다른 변수에 통제됐을 때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결과로 향후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남성 노인의 경우는 학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는 학력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남성 노인은 학력이라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변수인 반면, 여성 노인은 소득이라는 현실적이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인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가족 및 친구관계 등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 점이다. 물론 연령, 소득, 학력과 같은 개인적 배경과 복지시설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반면, 사회활동과 가족 및 친구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와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노인에 대한 정책을 계획 및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 단 한 번의 연구로 노인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이 과학적으로 엄격한 방법에 의해 추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곽인숙(2011).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 107-120.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중돈·조수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권현수(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5): 995-1008.
- 김광호(2019).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6(2): 127-164.
- 김명소(2003).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및 행복을 위한 제언. <보도참고자료>. www.hoseo.ac.kr/~mskim/.
- 김명숙·고종욱(2013).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46-259.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미령(2008).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선녀(2013). 고령화 사회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혁신연구」. 4(1): 175-208.
- 김성연·박미석(2000). 도시 노인의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18(1): 67-84.
- 김수연·원영신·김원진(2019). 노인의 운동실천이 연령규범에 미치는 영향-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2): 1-19.
- 김양이·송기오(2010). 제주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성문제 해결방안. 「노인복지연구」. 50: 221-242.
- 김연·유영주(2002). 기혼남녀의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8.
- 김영주(2009). 농촌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6: 77-104.

- 김점남(2011). 「노인의 성인식, 성생활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2018). 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복지패널의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한국정책학회보」. 27(3): 181-201.
- 김지연(2007).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한 실태와 정책과제.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1-51.
- 김춘미·이홍자(2010). 일개 지역 노인들의 성인식, 성생활 및 생활만족도. 「지역사회간호사학회지」. 21(3): 282-291.
- 김태현(1980). 제주도 노인생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1): 97-109.
- 나동석·김영대(2011).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3: 185-203.
- 나임순(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1): 123-139.
- 남기민·남현정. (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395-420.
- 남기민(2006).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0: 303-328.
- 김홍남·차은진·김경호(2017).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21, 8(2): 457-480.
- 리해근·하규수(2012).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80-292.
- 박상규·고정은·이영희(2012). 노인 남녀의 인지기능 관련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7(3): 85-95.
- 박지현·최성은(2020).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요인과 다차원적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3): 351-365.
- 손근호·김경호(2020). 연령 집단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127-138.
- 오승환(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농촌·어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209-231.
- 원영옥·곽종형(2014). 노인의 성생활인식이 성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경영연구」. 1(1): 109-130.
- 윤명숙·이묘숙(2011). 지역사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99-115.
- 이신숙·이선정(2019). 노인의 성생활 인식이 부부 간의 친밀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89-110.
- 이윤경(2009).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습 형평성 시계열 변화 분석. 「보건복지포럼」. 55-63.

- 이혜자·성명옥·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 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임은의·구본진·임세현(2008).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2): 567-590.
- 정명숙(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0(1): 145-169.
- 정순돌·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조계화·김영경(2008). 한국 노인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학회지」. 39(5): 622-631.
- 차은진·김경호(2017). 노년기 우울과 생활만족도: 정책적 함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4): 55-68.
- 허준수·조승호. (2017).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673-691.
- 허준수(2004).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 홍성희(2016).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89-108.
- 황리일·임지영·이영휘(2009).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9(5): 622-631.
- Antionucci, Toni & Hiroko Akiyama(1991). Social relationships and Aging wee. *Generations*. 15(1): 39-44.
- Balanchflower, David G. & Oswald, Andrew(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7487.
- Bjornskov, Christian.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3-16.
- Brown, G. and Harris, T(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London: Tavistock.
- Chen, S. T., Lee. C. K., Chan, A. C. m., Leung, E. M. F. & Lee, J. J.(2009). Social network typ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6): 713-722.
- Chen, P. Y. and Spector, P. E.(1991). Negaive Affectivity as the Underlying Cause of Correlations between Stressors and Strains. *Journal of Psychology*. 7: 398-407.
- Chou, K. & I. Chi(1999).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Hong Kong Chinese elderly: A longitudinal study. *Aging & Mental health* 3(4): 328-355.
- Coke, M.(1992). Correlateds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7(5): 316-320.

- Diener, E, Suh, Eunkook M., Lucas, Richard E., and Smith, Heidi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asterlin, R. A.(1995). Will Raising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 Frey, Bruno S. & Stutzer, Alois.(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 918-938.
- Graham, Carol and Pettinato, Stefano(2001). Happiness, Markets, and Democracy: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237-268.
- Gutierrez, M., J. Tomas, L. Galiana, P. Sancho, & M. Cebrias(2013).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ngolan Elderly: A Structural Model. *Aging & Medical Health*. 17(1): 94-101.
- Helliwell, John F.(2001). Social Capital, the Economy and Well-Being. in Keith Banting, Andrew Sharpe, France St-Hilaire (eds.). *The Review of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Montreal: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 Inglehart, Ronald(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 Klingemann, Hans-Dieter(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d Diener & Eunkook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Jenkins, R., M. Pienta, & L.(2002). Horgas.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search on Aging*. 24(1): 124-149.
- Konow, J. and Earley, J.(1999). *The Hedonistic Paradox: Is Homo-Economicus Happier?*. mimeo, Loyola Marymount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Leyden, K. M., Goldbeerg, A. & Michelbach, P.(2011). Understanding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en Major Cities. *Urban Affair Review*. 47(6): 861-888.
- Lim, C. 7 Putnam, R.D.(2010). Religion,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914-933.
- Litwin, H. & Shiovitz-Ezra, S.(2006). Network Type and Mortality Risk in Later Life. *Gerontologist*. 40(6): 735-743.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 Oswald, Andrew 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 1815-1831.
- Markides, S. & W. Martin(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1): 86-93.

- Putnam, Ronal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Rodrik, Dani(1998).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NBER Working Paper No. 6350*.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preitzer, E. & E. Snyder(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4); 454-458.*
- Yuan, Hao(2016). Structural Social Capital, Household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The Evidence from Beijing, Shanghai and Guangdong-Province, Chin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 569-568.*

* **김기영(金基榮)**: 세종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 및 직무 특성이 이종몰입에 미치는 영향, 2014),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인복지, 노인의 성, 사회복지 등이 관심 분야이며, 저서로는 「다시 찾은 성의 르네상스」(2005), 「황혼의 남과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2009) 등을 발표하였다.

*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2019), 논문으로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2019),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2019), 경기북도 설립 효과(2018)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hbpark@cau.ac.kr).